



'2011 담양 수목길 걷기대회'가 지난 22일 오후 담양 관방제림 및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일대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관방제림길을 걷고 있다.

관방제림길  
메타세쿼이아길  
2000여명 함께  
가을속으로

'2011 담양 수목길 걷기대회'가 지난 22일 오후 담양추석경기장 및 관방제림 일대에서 시·도민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담양군이 주최하고 광주일보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함께 걸자, 가을속으로'란 슬로건으로 시·도민의 건강과 화합을 위해 마련됐다.

가족, 연인의 손을 잡고 행사장을 찾은 참가자들은 추석경기장을 출발해 담양 오방길 1코스(추석경기장 야외무대~관방제림~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금월교~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총 5km구간을 2시간여 동안 걸으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오방길은 담양군이 담양읍내 수목길(中)을 중심으로 슬로시티 싸목싸목길(東), 담양하천 습지길(西), 가사문화 누정길(南), 담양호 산성길(北) 탐방로 등 5개 구간을 자연과 사람, 마을과 문화가 어우러져 스토리가 흐르는 오색길로 정비한 구간이다.

행사 시작 전 풍물패가 흥을 더했고 참가자들은 황금빛으로 물들기 시작한 가로수길 사이로 삶의 여유와 가족의 사랑을 수채화 같은 가을 풍경 사이로 느끼며 걸었다.

담양군에서는 참가자들을 위해 코스 중간에 담양을 대표하는 음식인 죽순요리 시식, 오방차 체험, 오방비누 체험, 오방한과 체험, 오방염색 체험, 오방주먹밥 체험, 오방천연염색 체험 등의 코너를 운영했다.

최영식 군수는 "제주도에 올레길이 있다면 담양에는 오방길이 있다"며 "슬로시티 담양에서 가을빛 만끽이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녀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았다는 임금순(여·87·담양읍 남산리2구)씨는 "평생을 담양에서 살았는데, 담양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름다워지고 있다"며 "이제는 의외하게 자란 아들과 울긋불긋 물들기 시작한 길을 걸으니 감회가 남다르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아름답다 가을 길, 행복하다 가을 추억



걷기대회 참가자들이 담양군에서 코스 중간에 마련한 죽순요리 시식, 오방차, 오방비누 등 체험코너를 둘러보고 있다.



행사에 참가한 담양중 김성희 교장(앞줄 오른쪽 2번째)과 자원봉사 동아리 학생들이 쓰레기 줍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가족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학생이 오방주먹밥을 맛보고 있다.



어울림 예술단의 흥겨운 풍물 소리가 울긋불긋 가을빛으로 치장한 수목길을 수놓았다.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 올 가을에도 정성을 다해 고객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 평일 주중 점심 특선 : 오찬정식 15,000원 ● 30년 전통의 한정식 : 25,000원부터 ●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홍플렉스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안티식탁 이태리**

**안티좌탁·거실TV장 이태리**

**소파 이태리**

모든 식탁과 좌탁은 상판 밑 좌우에 있는 50cm 보조 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 가능 합니다. (한국 독점 수입)

(주)홍스페이스는 100%이태리 친환경 안티가구, 클래식가구를 직수입 도, 소매 하고 있으며 직수입⇒직영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동구 장동 58-15 홍스페이스 가구 빌딩(동구청-전여고사이) SINCE 1992 100% 이태리 가구 직수입 도 소매

**홍스페이스**  
SPACE  
☎ 062 226 7567